

# 역행대명사화 현상에 관하여

배 태 영

## 0

Kuroda(1966)가 처음으로 어떤 상황 아래서는 대명사화가 역행(backward)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 같다. 그는 다음 (1)과 같은 예를 제시하면서, (1a)로부터 (1b)와 (1c) 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 아래서는 (1d)와 같은 문장도 유도될 수 있다고 말했다(Kuroda, 1966—276, fn. 14.).

- (1) a. Mary saw *John* smile when *John* entered the room.
- b. Mary saw *John* smile when *he* entered the room.
- c. When *John* entered the room Mary saw *him* smile.
- d. When *he* entered the room Mary saw *John* smile.

이와같이 대명사화하는 명사가 definite 이면 대명사화의 과정이 옳은편에서 왼편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즉, 역행대명사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되었던 것이다.

한편 Ross(1967)는 (2)와 같은 대명사에 관한 영어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3)과 같은 역행대명사화에 관한 조건을 제안하였다(Ross, 1967—195).

- (2) a. *Jim* will go if *he* feels good.
- b. \**He* will go if *Jim* feels good.
- c. If *Jim* feels good, *he* will go.
- d. If *he* feels good, *Jim* will go.

### (3) Condition on backward pronominalization

If one element precedes another, the second can only pronominalize the first if the first is dominated by a subordinate clause which does not dominate the second.

그러나 대명사화하는 명사가 definite이라도 역행대명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9c) 참조), (3)의 역행대명사화에 관한 조건에 대하여도 여러가지 반례로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14), (21b), (24a) 참조). Kuroda (1966)와 Ross(1967)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역행대명사화에 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행하여져 왔는데, 이하 이에 관한 몇가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위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Culicover (1976)의 출력조건의 타당성과, Discourse Constraint 및 Imitation Tendency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 1

Kuroda (1966)는 역행대명사화 현상이 일어나려면 대명사화하는 명사가 definite라야 한

다고 지적하였다.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보자.

- (4) a. *Mary saw a salesman smile, when he entered the room.*  
 b. \**Whem he entered the room, Mary saw a salesman.*  
 c. *When he entered the room, Mary saw the salesman.*

(4b)와 (4a)는 동의문 (synonymy)이 아니다. 왜냐하면 (4b)의 *he*와 *a salesman*은 동일지시적 (coreferential)이 아니기 때문이다. ((4b)의 *he*와 *a salesman*이 동일지시적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 문장 자체가 용인가능한(acceptable)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4c)와 같이 NP가 definite이면 선행하는 대명사와 동일지시적일 수가 있다. (4b)와 같이 부정명사구 (indefinite NP)는 선행하는 대명사와 동일지시적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Indefinite NP Constraint라 부르기로 한다.

다음의 (5)와 (6)이 문법적이라고 하는 사실은 선행하는 대명사와 동일지시적인 정명사구 (definite NP) (이 경우에는 고유명사)가 그 뒤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5) *If she comes here, John will kiss Mary.*  
 (6) *When he asks for me, tell George I'm not in.*

그러나 다음의 (7)과 (8)의 경우를 살펴보자.

- (7) a. \**If she comes here, John will kiss Mary.*  
 b. \**If she comes here, John will kiss Mary.*  
 (8) a. \**When he asks for me, tell George I'm not in.*  
 b. \**When he asks for me, tell George I'm not in.*

이와같은 부류의 문장들로부터 Lakoff (1968)와 Culicover (1976)는 선행하는 대명사와 그 뒤에 오는 동일지시적인 명사는 비강세적 (unstressed)이어야 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우리는 이 제약을 Stress Constraint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Cole (1974)과 Bolinger (1979)는, 역행대명사화 현상은 antecedent를 위한 discourse referent가 존재할 때에 일어난다고 진술한다. 우리는 이것을 Discourse Constraint라고 부르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단편적인 담화 (discourse)를 살펴보자.

- (9) a. A : *What do you suppose happened to me ?*  
 b. B : *I have no idea.*  
 c. A : \**When she came here, John kissed Mary.*  
 (10) a. A : *What happened to Mary yesterday ?*  
 b. B : *When she came here, John kissed Mary.*

(9c)에서 *Mary*가 비록 definite NP이지마는, (9c)가 비문법적인 것을 Discourse Constraint에 의하여 설명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9c)에 선행하는 (9a)와 (9b)의 담화 속에 (9c)의 *she*의 antecedent를 위한 discourse referent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10a)에는 (10b)의 *she*의 antecedent를 위한 discourse referent인 *Mary*가 있기 때문에 (10b)는 문법적인 것이 된다.

## 2

여기에서, 만일 이 Discourse Constraint가 옳다고 하면 Indefinite NP Constraint와 Stress Constraint는 없어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담화를 살펴보자.

- (11) a. *Mary knows a gentle salesman.*  
 b. \**If he enters the room, Mary will see a gentleman smile.*  
 c. *If he enters the room, Mary will see the gentleman smile.*

(11a)를 뒤따르는 (11b)와, (11a)를 뒤따르는 (11c)와를 비교해 보면, (11b)는 비문적이거나 (11c)는 문법적이라는 사실로부터, 명사가 만약 discourse referent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언제나 정명사구이고 부정명사구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Discourse Constraint가 지켜지면, Indefinite NP Constraint를 위반하는 (11b)와 같은 문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Discourse Constraint가 채택되면 Indefinite NP Constraint는 없어도 좋은 것으로 된다.

Postal(1972) 등으로부터 추리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정보(old predictable information)는 강세를 받지 않으나, 한편 새로운 예측할 수 없는 정보(new unpredictable information)는 강세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지니고 다음 (12)를 살펴보기로 하자.

- (12) a. A : What can I do for you ?  
 b. B : \**If he asks for me, tell Géorge I'm not in.*  
 c. B' : *If he asks for me, tell George I'm not in.*

(12b)의 *George*에 놓인 강세는, *George*가 새로운 예측할 수 없는 정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에는 대명사 *he*는 antecedent를 위한 discourse referent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결국, Discourse Constraint를 어긴 것으로 된다. 따라서 (12a)에 뒤따르는 (12b)는 비문법적이다. 한편, (12c)는 문법적인 문장이며, Discourse Constraint는, 대명사와 역행대명사와 현상을 가지는 명사구는 다같이 강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Lasnik(1976)는 command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든 그의 예문(8b=13)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은 비문법적이라고 지적했다.

- (13) \**It surprises him that John is so well liked.*

(13)에 있어서 화자는 마치 *John*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되어있었는데, 화자는 자기 자신의 현재의 마음은 알 수 있지만 *John*이 품고 있는 현재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John*에 관한 정보는 새로운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강세가 놓이게 되고, Discourse Constraint를 어기는 것으로 되어 용인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Bolinger(1979)에 의하면 (13)은 그것을 용인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되어질 수가 있다.

- (14) a. *It surprised him that John was so well liked.*  
 b. *It obviously surprised him that John is so well liked.*

(14a)에 있어서의 과거 시제는 본래 이미 기대할 수 있는 과거의 정보임을 알게 하고, (14

b)에 있어서는 비록 그것이 현재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obviously*) 밖으로 나타나는 이미 가 대할 수 있는 정보 이므로 각각 *John*에 강세를 받지 않게 되고, 용인가능한 문장이 된다. 따라서 Discourt Constraint는 antecedent를 위한 discourse referent가 존재하는 것에 뿐만 아니라 predictable information 및 화자가 대명사화된 NP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나하는 상황에까지 확대적용된다. 이리하여 Discourse Constraint 아래서는 Indefinite NP Constraint 뿐만아니라 Stress Constraint도 필요치 않는 것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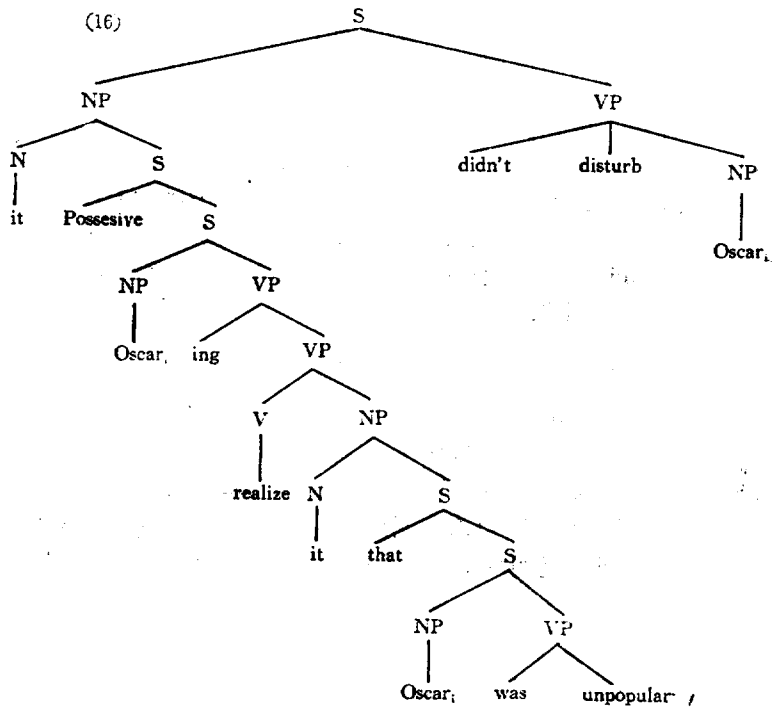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는 역행대명사화 현상은 만약 관계되는 대명사가 Discourse Constraint를 어기지만 안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왔다. 즉, 이 역행대명사화 현상은 Discourse Constraint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이 Discourse Constraint의 개념이 옳다고 하면 위에서 논의한 역행대명사화 현상들은 역행대명사화라기보다 오히려 어떤 유도과정에서 어떤 명사구가 그 앞에 있는 명사구에 의해 대명사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Ross(1969)는 표면구조상으로 보아 순행대명사화(forward pronominalization)가 허락되지 않고 역행대명사화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실은, 그 문장의 어떤 유도 단계에서, 그 앞에 있는 동일지시적인 명사구에 의하여 순행대명사화한 것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 (Ross, 1969-190).

(15)a. ※Realizing that *Oscar* was unpopular didn't disturb *him*.

b. Realizing that *Oscar* was unpopular didn't disturb *him*.

Ross(1969)는 (1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간략화한 중간구조를 생각하고 있다.



첫째 cycle 인 *Oscar was unpopular*에서는 두개의 동일지시적 명사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명사화가 적용되지 않음은 문론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래의 (17)에서는 대명사화가 적용된다.

(17) *Oscar realized that Oscar was unpopular.*

그리고 여기에는 순행대명사화가 적용되어 다음 (18)을 유도한다.

(18) *Oscar realized that he was unpopular.*

여기에서 역행대명사화는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역행대명사화에 관한 조건 (3)에 의하여 처음에 일어나는 *Oscar*는 종속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cycle에 이르렀을 때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된다.

(19) *Oscar's realizing that he was unpopular didn't disturb Oscar.*

처음 일어나는 *Oscar*는 동일명사구삭제 규칙에 의하여 삭제되고 (15b)와 같은 문장이 유도되는 것이다.

## 3

다음에, 우리는 역행대명사화 현상에 관한 구조적 제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한다. Discourse Constraint가 적용되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예로서 다음 (20)을 살펴 보기로 한다.

(20)a. I don't like *Mary*.

b. *She* always talks about *Mary's* beauty.

(20b)는 그것이 비록 Discourse Constraint를 따른다 하더라도 역시 비문법적이다. (20)과 같은 경우를 설명하기 위하여 Lasnik(1976)와 Culicover 1976)를 서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Lasnik(1976)는 (20)과 다음 (21)에서와 같은 문장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22)와 같은 역행대명사화 현상에 관한 출력조건을 제안하였다.

(21) a. \**Mary* told *him* that she would marry *John*.

b. *Mary* told *his* mother that she would marry *John*.

c. \**She* is more beautiful than *Mary* was 20 years ago.

d. *Her* daughter is more beautiful than *Mary* was 20 years ago.

e. \*I sent *him* a picture of *John*.

f. I sent *his* mother a picture of *John*.

g. In *his* apartment, *John* plays the 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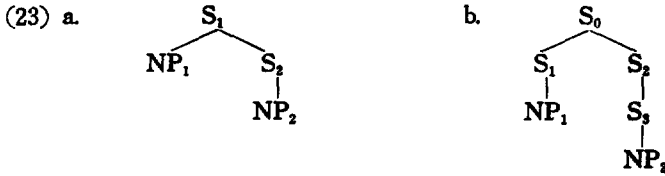
h. Before *he* took a bath, *John* read the book.

(22) *Lasnik's Output Condition*

If  $NP_1$  precedes and commands  $NP_2$ , and  $NP_2$  is not a pronoun, then  $NP_1$  and  $NP_2$  are noncoreferential.

Command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만일 (i) node A (S 또는 NP)가 node B를 지배하지 (dominate)않고, (ii) B가 A를 지배하지 않으며, (iii) A는  $S_1$ 의 구조 안에

있고, (iv) node S<sub>1</sub>이 B를 지배하면, node A는 node B를 command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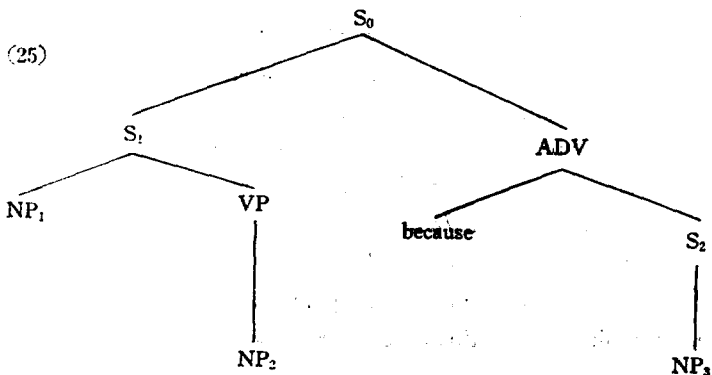


(23a)에서 NP<sub>1</sub>은 S<sub>1</sub>의 구조 안에 있고, S<sub>1</sub>은 NP<sub>2</sub>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NP<sub>1</sub>은 NP<sub>2</sub>를 command한다. 그리고 (23b)에서는 S<sub>1</sub>이 NP<sub>2</sub>를 지배하고 있지 않으므로 NP<sub>1</sub>은 NP<sub>2</sub>를 command하지 못한다. (cf. Jackendoff 1972—140; Langacker, 1969—167). 따라서 (20b)와 (19a, c, e)는 NP<sub>1</sub>(대명사)이 NP<sub>2</sub>(명사)를 선행함과 동시에 command하므로 (22)의 출력조건에 의하여 비문법적인 것으로 된다. 그러나 (19d, f, g, h)에 있어서는 NP<sub>1</sub>이 NP<sub>2</sub>를 선행하고는 있지만, command하지는 않으므로 이 문장들은 문법적이다.

지금까지 보아온대로는 (22)의 출력조건이 역행대명사에 관해 설명을 해주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24)에서와 같은 문장들을 만나게 된다.

- (24) a. *Mary hit him because John told a lie.*
- b. ~~*He*~~ *was hit by Mary because John told a lie.*
- c. *It was easy to please him after John had eaten dinner.*
- d. ~~*He*~~ *was easy to please after John had eaten dinner.*
- e. *Mary gives him a book if John asks for one.*
- f. ~~*He*~~ *gets a book from Mary if John asks for 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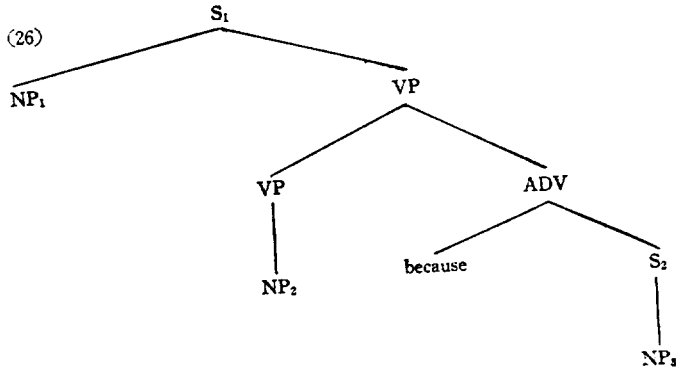
(22)의 조건 아래에서는 (24a)가 문법적이기 위하여는 *him*이 *John*을 command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24a)는 NP<sub>2</sub>가 *him*이고 NP<sub>3</sub>가 딸 *John*인 (25)와 같은 구조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만약, (24b)가 (25)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되면, NP<sub>1</sub>이 *he*가 되고 NP<sub>2</sub>가 *John*이 되어, NP<sub>1</sub>은 NP<sub>3</sub>를 command하지 않으므로 (22)의 조건에 의하여 비문법적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24b)가 다음 (26)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면,

NP<sub>1</sub>이 *he*가 되고, NP<sub>3</sub>는 *John* 이되어, NP<sub>1</sub>이 NP<sub>3</sub>를 command하기 때문에 (24b)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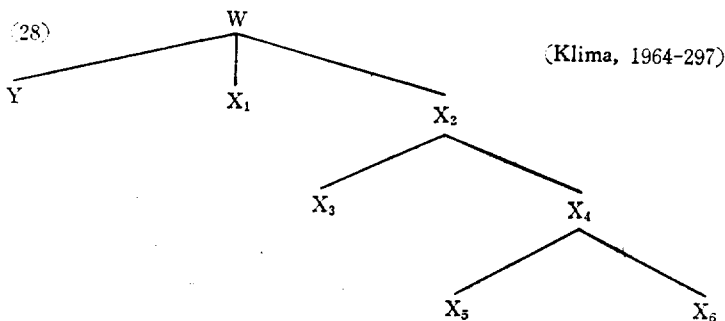


비문법성이 성명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24a)가 (26)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면, NP<sub>2</sub>는 *him*이 되고 NP<sub>3</sub>는 *John*이 되어, NP<sub>2</sub>는 NP<sub>3</sub>를 *command*하기 때문에, 당연히 (24a)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24a)는 문법적인 문장이다. 이와같은 논의가 (24c-d)와 (24e-f)의 쌍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이와같은 상황을 고려에 넣어, Culicover(1976)는 다음과 같이 출력조건을 수정하게 되었다. 그는 *command* 라는 개념 대신에 *in construction with*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 (27) If...Pro...NP..., then 1 and 2 are coreferential if (i) 2 is not in construction with 1 and (ii) 1 and 2 are not elements of separate symmetrically conjoined structures.

“in construction with”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가, B를 지배하는 첫번째의 branching node에 의해 지배되면, A는 B와 in construction with의 관계인 것이다. 다음 (28)에 있어서,



만약 한 구성요소(예, X<sub>4</sub>)가, 다른 구성요소(예, X<sub>3</sub>)를 지배하는 branching node(즉, X<sub>2</sub>)에 의해 지배되면, X<sub>4</sub>와 X<sub>3</sub>는 in construction with의 관계이다. 마찬가지로 Y는 W에 의해 지배되므로, Y는 X<sub>2</sub>는 물론 X<sub>1</sub>과 in construction with의 관계이다. 그러나 Y는 X<sub>3</sub>와는 in construction with의 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Y는 X<sub>2</sub>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7)의 조건 (ii)는 다음 (29)와 같은 문장의 비문법성을 설명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29) \**He is tall and John likes to play basket ball.*

여기에서 *He*와 *John*은 대칭적으로 분리된 접속구조의 요소인 것이다.

다음에서 다시 (24)–(26), 을 (27)과 관련시켜 살펴보기로 하자. 만약 (24b)가 (25)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하면, (22b)는 *John*(NP<sub>3</sub>)과 *he*(NP<sub>1</sub>)는 in construction with의 관계가 아니므로 (27)에 의해 부당하게도 문법적인 문장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24b)가 (26)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하면, *John*(NP<sub>3</sub>)은 *he*(NP<sub>1</sub>)와 in construction with의 관계이므로 (27)에 의하여 정당하게 비문법적인 것으로 처리될 것이다. 또한 (24a)가 (26)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하면, *John*(NP<sub>3</sub>)은 *him*(NP<sub>1</sub>)과 in construction with의 관계이므로 (27)에 의하여 정당하게 비문법적인 것으로 처리될 것이다. 또한 (24a)가 (26)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하면, *John*(NP<sub>3</sub>)은 *him*(NP<sub>2</sub>)과 in construction with의 관계가 아니므로 문법적인 것으로 올바르게 처리될 수가 있다. 이와같이 (24)에 있는것과 같은 문장들은 (26)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그 문장들이 (27)에 의해 검토될때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까지 우리는 (27)이 (22)보다 더 적절한 조건 인 것 같이 생각된다는 것을 보아왔다. 바꾸어 말하면, 역행대명사와 현상에 관해서는 경험적으로 와서 in construction with라는 개념이 command라는 개념보다 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음과 같은 반례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의 (30)과 (31)을 살펴보기로 한다.

(30) \**The thing that surprised her was my kissing Mary.*

(31) *The man who married her was a friend of Mary's.*

Postal(1971)은, 역행대명사와 현상은 지시적일치(referential identity)의 copula verb를 넘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30)에 있어서는 copula는 지시적일치의 술어로 작용하고 있어서 역행대명사와 현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30)은 비문법적이며, (31)에 있어서는 copula가 set inclusion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문법적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Discourse Constraint에 의하여 처리될 수가 있다. (30)은 Discourse Constraint가 요구하는 바에 의하여 *Mary*에 강세를 놓지 않도록하면 문법적인 문장으로 개선될 수가 있어 Postal(1971)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다. 다음(32)의 문장을 살펴보자.

(32) a. *The thing that surprised her was my passionately kissing Mary.*

b. *The thing that surprised her was my kissing Mary in other way.*

(32a)에서와같이 *Mary*에 강세를 두지 않고 *passionately*에 강세를 두거나, (32b)에서와같이 in other way를 덧붙여서 이전부터 내가 *Mary*에게 키스를 해왔다는 것을 나타내며, *Mary*는 이미 예측된 정보로서 강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함으로써 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Discourse Constraint에 기인되는 강세 및 예측된 정보에 대한 고려는 Bolinger(1979—293)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3) a. \**His mother hates John all the time.*

b. *His Mother hates John when he behaves that way.*



- (34) a. \*His pen is in John's pocket.  
 b. His pen is John's constant companion.

(33a)와 (34a)에서는 *his*의 antecedent를 위한 discourse referent가 존재하지도 않고, *John*이 이미 예측된 정보도 아니므로 *John*에 강세가 놓이게 되어 Discourse Constraint를 어기게 되므로 비문법적이다. 그러나 (33b)에서는 *he behaves that way*라는 표현에서, 그 이전에 *John*의 행동하는 태도에 대해서 언급된 discourse referent를 위한 antecedent가 존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John*은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강세를 받지 않게 되므로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34b)에서도 *constant*라는 말 속에 이전부터 계속 나왔거나, *John*에 대해서 언급된 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John*에는 강세가 놓이지고 *constant*에 강세가 놓이게 되어 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 4

한편 Kuno(1975)는 역행대명사화를 가진 문장의 용인가능성(acceptability)에 관한 또 하나의 요인을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Imitation Tendency이다. 이 Imitation Tendency는 단일 어떤 문장이 역행대명사화 현상이 포함되면, 그 문장의 알려진 부분(known part) 속에 있는 명사구는 대명사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에서, Kuno(1975)로부터 인용한 (35), (36)을 (10)(여기에서는 (37)에 반복시킨다)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 (35) a. A: What did you do when you saw Harry getting mad?  
 b. B: (?) I calmed him before Harry did something rash.
- (36) a. A: Who calmed Harry?  
 b. B: \*I calmed him before Harry did some thing rash.
- (37) a. A: What happened to Mary yesterday.  
 b. B: When she came here, John kissed Mary.

(35a)는 화자 B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알려진 부분은 (33b)의 *I calmed him*이다. (36a)는 누군가가 *Harry*를 진정시켰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36b)에서 알려진 부분은 역시 *I calmed him*이다. (37a)에서는 *Mary*에게 무엇인가가 일어났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따라서 알려진 부분은 (37b)의 *John kissed Mary*이다.

(35b)와 (36b)는 대명사가 알려진 부분에 들어 있기 때문에 Imitation Tendency를 어기고 있다. 한편 (37b)는 *Mary*가 알려진 부분에서 대명사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Imitation Temptation을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35b)는 (37b)보다 용인가능성이 적으며 (36b)는 용인가능성이 없다.

Kuno(1975)에 의하면, 다같이 Imitation Tendency를 어기고 있는 (35b)와 (36b)사이의 용인가능성의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35b)와 (36b)의 용인가능성은, 비대명사화 명사구(여기서는 고유명사 *Harry*)가 그 (의문)문의 대응하는 구조(Parallel structure) 속에 그의 비대명사화 상대(counterpart)를 가지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36b)는 비대명사화 명사구가 그 문장의 종속절 속에 위치하여 있고, 한편 (36a)에서 그것의 상대인 비대명사와 명사구는 단문(simple sentence)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에 용인가능성이 없다. (비록(36b)가 여기에서는 용인가능성이 없으나 (27)의 출력조건과 Discourse Constraint에 의하여는 그 문법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그러나 (35b)는 (36b)보다 훨씬 더 용인가능성이 길다. 왜냐하면, 비대명사화 명사구 *Harry*와 그 상대인 의문문 속의 비대명사화 명사구 *Harry*가 다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방경향이 더 짙기 때문에, (36b)보다는 (35b)가 더 용인가능하다는 것이다.

## 5

지금까지 우리는 역행대명사화 현상에서는 command라는 개념보다 in construction with 라는 개념이 훨씬 더 적절한 개념이며, Discourse Constraint 아래서는 Infinite NP Constraint와 Stress Constraint는 잉여적이라는 것을 보아왔다. (27)의 출력조건과 Discourse Constraint는 언어능력과 관계가 있으며(전자는 문장문법에, 후자는 담화분석에 각각 속한다), 담화분석에 속하는 Imitation Tendency는 언어수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7)의 출력조건과 Discourse Constraint가 문장의 문법성을 보장해주어도 Imitation Tendency와 같은 요인 때문에 용인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은 주목할 일이라 생각된다.

## Bibliography

- Bolinger, D. (1979), "Pronoun in discourse," in T. Gibón(ed.), *Syntax and Semantics* 12, Academic Press, New York.
- Chomsky, N. (1975), "Conditions on rules of grammar," in R. Cole(ed.),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Indiana University Press.
- Cole, P. (1974), "Backward pronominalization and analogy," *Linguistic Inquiry* 5:3. 425-43.
- Culicover, P.W. (1976), "A constraint on referentiality," *Foundation of Language* 14:1. 109-18.
- Hinds, J. and N. Okada (1975), "Backward pronominalization across coordinate structures," *Linguistic Inquiry* 6:2. 330-5.
- Jackendor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MIT Press, Cambridge, Mass.
- Klima, E.S. (1964), "Negation in English," in Forder J. and J. Katz (eds.), *The structure of language*,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 Kuno, S. (1972), "Pronominalization, reflexivization, and direct discourse," *Linguistic Inquiry* 3:2. 161-96.
- \_\_\_\_\_ (1975), "Three perspectives in the fundamental approach to syntax," in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functionalism*, Chicago Linguistic Society. 276-336.
- Kuroda, S.-Y. (1966), "English relativization and certain related problems," in Riebel, D. and S. Schane(eds.) 264-88.
- Lakoff, G. (1968), "Pronouns and reference part I and II." Reproduced by the Indiana Linguistic Club.
- \_\_\_\_\_ (1970), "Pronominalization, negation, and the analysis of adverbs," in Jacobs, R. and P. Rosenbaum(eds.), *Reading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Blaisdell, Waltham, Mass.
- Langacker, R. (1969), "On pronominalization and the chain of command," in Riebel, D. and S. Schane (eds.) 160-86.
- Lasnik, H. (1976), "Remarks on coreference," *Linguistic Analysis* 2:1. 1-22.
- Postal, P. (1969), "On so-called 'pronouns' in English," in Riebel, D. and S. Schane(eds.) 201-24.

- \_\_\_\_\_ (1971), *Cross-over Phenomena*,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 \_\_\_\_\_ (1972), "Some further limitation on pronominalization," *Linguistic Inquiry* 3 : 3. 349-71.
- Riebel, D. and S. Schane(eds.) (1969), *Modern studies in English: Reading in transformational grammar*, Englewood Cliffs, New York.
- Ross, J. (1969), "On the cyclic nature of English pronominalization," in Riebel D. and S. Schane(eds.) 187-200.
- Stockwell, R., P. Schachter and B. Partee (1973), *The Major Syntactic Structure of English*,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 Takahashi, K. (1978), "Backward pronominalization and its output condition," *English Linguistics* 18. 67-84.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영어영문학과 조교수